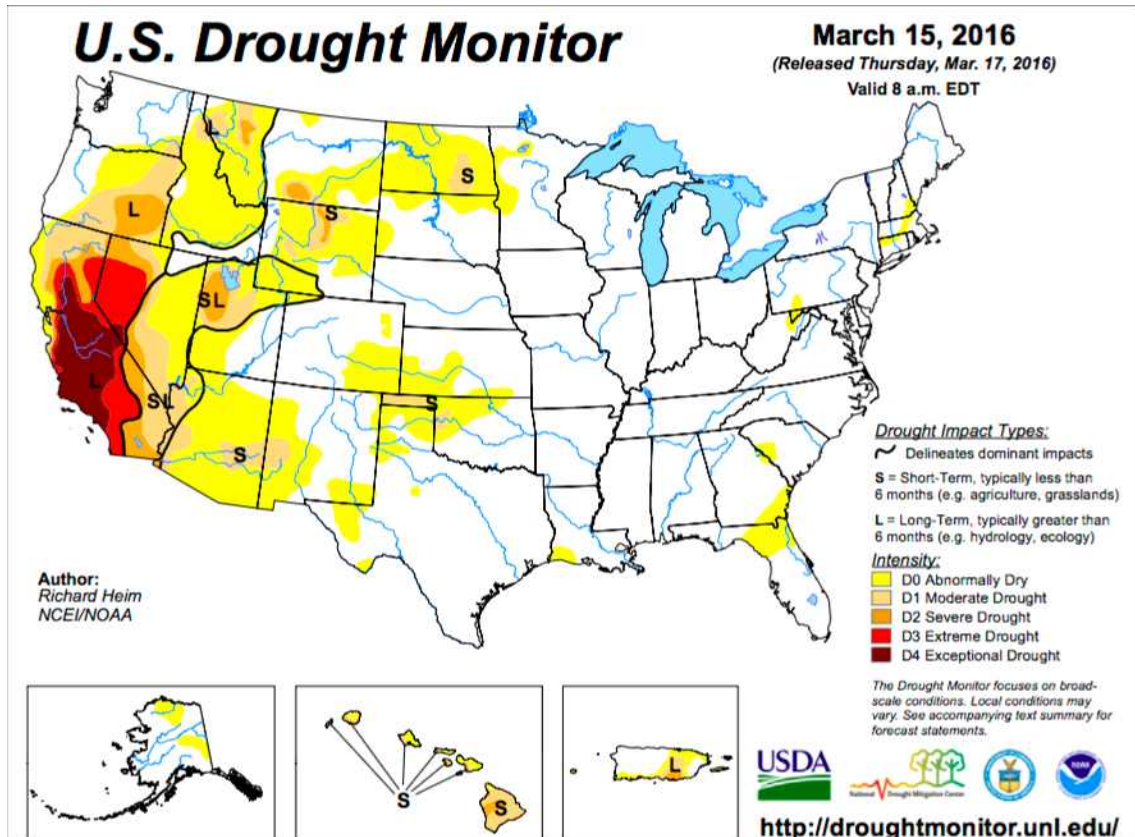


3월 2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12)

□ 미국 기후 현황(3/13~3/19)

지난 주 남부 일대에 많은 비를 뿌렸던 비구름들은 세력이 약해지면서 중서부와 동부로 이동을 했다. 걸프 연안 지역에서는 비가 지루하게 이어진 가운데 1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텍사스 동부에서부터 미시시피 델타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지난 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여전히 곳곳이 침수되어 있는 상황이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중서부에서는 2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위스콘신 일대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 중서부 일대에서는 이처럼 많은 비가 오기는 했지만, 기온은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와 대서양 연안의 남부 일부 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최소 10~15°F 이상 높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대평원 서부에서는 주 후반에 눈이 조금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평원 남부 일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 현상이 나타났다. 캔자스 남서부, 콜로라도 남동부, 오클라호마 서부, 텍사스 북부 등에서는 주 후반 일시적으로 추위가 찾아왔고, 이로 인한 겨울밀의 동해 피해가 예상된다. 지난 20일 오클라호마 서부와 인근 주에서는 최저기온이 5~20°F 사이를 오갈 정도로 기온 변화가 심했다.



□ 농업 현황 요약(3/14~3/20)

워싱턴에서부터 오클라호마에 이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의 날씨가 이어졌다.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으며, 특히 대서양 연안 남부의 대부분의 지역들과 중서부 및 오하이오 인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최소 9°F 이상 높았다. 미국 전역에서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남서부 일부 지역과 대평원 북부 일부지역에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반대로 미네소타와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주 간 평년에 비해 8배가 많은 비가 쏟아졌다.

□ 세계 기후 현황(3/13~3/19)

■ 유럽: 대륙 전역에서 맑고, 차가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남부와 동부의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이어졌다. 프랑스와 영국 남동부, 폴란드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은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낮았다. 평년에 비해 낮은 기온으로 인해 북동부 일대에서는 겨울 작물들이 아직 휴면기에 머물고 있고, 서부지역에서는 작물들이 점차 휴면기를 끝내고 성장을 재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밤 기온은 영하 2~4°C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동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 일대에서는 최근의 이상 고온 현상이 끝이 나고 전반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 구소련(서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고온 현상이 끝나고 다시 추운 날씨를 회복한 가운데 농지를 덮고 있던 눈은 이미 다 녹아 없어진 상황이다. 주 초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은 기온으로 인해 밀의 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눈이 녹아 없어진 덕분에 일부 지역에서는 봄 작물 파종작업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벨라루스 북부와 Volga 지역 일대에서는 여전히 6~50cm 정도의 눈이 농지를 덮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아직 농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우크라이나의 겨울 작물 재배지역과 러시아 남서부 등에서는 기온이 영하 3~7°C까지 내려갔지만, 이로 인한 겨울밀의 동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동아시아: 중국 남동부 일대에서는 지난 한주 간 비가 집중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토양 수분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파종한 작물들의 생육에는 좋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북부 평원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온은 평년에 비해 2°C 정도 높은 편이다.

■ 호주: 동부 일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인해 지난 주 일시적으로 이어졌던 가뭄이 대부분 해소되었다. 하지만, 이번 비로 인한 농작업 지연은 없었으며, 특히 분지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부 일대의 기온은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은 수준이며, 낮 최고기온은 30°C 내외에 머물고 있다.



■ 아르헨티나: 지난 한주 간 대체적으로 맑고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옥수수과 대두 등 작물들의 성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중부 일대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에서 중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북부 일대에서도 중부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작물들의 성장이 매우 활발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 후반에 10~5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렸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3월 17일 기준 해바라기의 수확률은 63%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앞선 수치이다. 해바라기 최대 생산지역인 Buenos Aires의 수확률은 39%이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 브라질: 중부의 주요 곡창지역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고, 대체적으로 작물의 생육에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 브라질 최대의 옥수수 생산지 중 하나인 Mato Grosso에서는 5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중부와 서부, 북동부 내륙 일대에도 25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Sao Paulo, 남부와 동부, Minas Gerais, Espirito Santo 등에서도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 한주 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3°C 이상 높았고, 이 덕분에 대두 등은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다. 남부 일대는 앞서 언급한 지역들과 반대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례적인 고온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Mato Grosso do Sul 남부와 Rio Grande do Sul 북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으며, 낮 최고 기온도 30°C 초반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Parana 주 정부에 따르면 3월 14일 기준 대두의 수확률은 74%, 옥수수의 수확률은 62%이다.